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44호

체육시민연대 한 줄 논평

‘프로야구 다년 계약 전면 허용’

모든 스포츠지도자 다년 계약 추진해야 한다.

2021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2021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성황리 개최, 학교체육 새 장을 열었다

신보순 스포츠조선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직장내 괴롭힘 여전...스포츠윤리센터 “인권익식 부족”

김용석 뉴스핌 기자

2022 베이징 올림픽

2022 베이징올림픽이 ‘성평등 올림픽’이 되려면

이세아 여성신문 기자

KBO

‘다년 계약’ 전면 허용...프로야구 새 시대 열린다

이성훈 SBS NEWS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소년체전 수영 ‘오심 논란’ 조사 나서...해당 심판은 배제

박민식 한국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1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성황리 개최, 학교체육 새장을 열었다.

“네, 알겠습니다’하고 따라와준 애들아, 너무 고마워.”

이성광 선생님은 마지막 '체육쌤'이다. 내년에 문을 닫는 부산덕천여자중학교, 그 곳에서 아이들과 19년을 함께 했다. "덕천여자중학교는 올해 28회 졸업생이 마지막입니다. 29회 졸업생은 없습니다."

전교생 37명. 폐교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나가볼래?" 모두 동의했다.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갔다. 같이 하는 체육시간은 아이들에게 소통의 시간, 나눔의 시간, 우정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었다. (백)민경이는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폐교된다는 것보다 추억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좋아요"라고 했다.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한지 (허)희정이는 "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으면 보자"란다.

27일, 줌 속의 아이들은 즐거웠다. 전국의 친구들과 실력을 겨루며, 추억을 차곡차곡 쌓았다. '2021년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주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은 덕천여중, 그리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 하는 추억',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란 큰 선물을 했다. 코로나19 탓에 위축된 학교체육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무대였다.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아이들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체육시간. 서울시교육청에서 휴대폰 영상과 플랫폼에서 답을 찾았다. 줄넘기 등을 하면서 제출한 영상을 한 무대에 모았다. 호응이 좋았다.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시도별 예선에 총 2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 운영을 진두지휘한 박연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올해는 혼자 뿐 아니라 둘이 할 수 있는 종목도 개발해서 폭을 넓혔다"며 "무엇보다 운동을 잘 하지 못해 소외됐던 학생들이 함께 하면서 동기부여와 함께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했다. 행사를 함께 준비한 학교체육진흥회 이민표 사무처장은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해외 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천여중을 포함, 예선을 거친 각시도 대표 870여 학생들이 이날 줌 속으로 모였다. 서울의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에 대회 운영 스튜디오가 차려졌다. 저글링, 축구, 줄넘기, 제기차기, 배드민턴 등 16개 종목 현장 중계를 위해 4개의 방송실이 운영됐다. 아나운서, PD 등 모든 진행은 선생님들이 맡았다. 아이들은 각 종목에 출전, 휴대폰 등의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량을 뽐냈다. 박 장학사는 "이틀 동안 사전 예행연습을 하며 철저히 준비했다"고 귀띔했다. 한쪽에서는 화면연결이 되지 않은 학교에 급히 연락을 취하는 '소통담당 선생님'의 손길이 바빠 움직였다.

행사 격려를 위해 교육부 정종철 차관도 현장을 찾았다. 정 차관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어울릴 수 있고 건강, 체력,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응원했다. 이어 제기차기 종목에도 참여, 조금은 녹슨(?) 실력을 과시했다. 모든 영상은 유튜브 교육부TV를 통해 생중계 됐다. 영상을 지켜보던 친구들은 열띤 응원의 댓글도 올려줬다.

비대면, 학교스포츠, 축전 이 모든 것이 모이니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더 큰 체육축제의 무대가 펼쳐졌다. 우리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자신감도 또 한뼘 커졌다.

체육계 직장내 괴롭힘 여전...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의식 부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동구체육회분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와 인권 등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 앞에서 성희롱·직장갑질, 2차가해 주범 울산동구체육회장 제명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체육계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일부 체육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윤리센터로 신고하는 직원의 상담·신고 건수가 23건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외에도 실업팀 등 직장운동경기부 내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지속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A사 실업팀 내 집단 괴롭힘 사건 및 B시 실업팀 성추행 사건이 센터로 접수되어 신속한 조사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해당기관에 대한 교육권고를 요청했다.

윤리센터는 체육계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접수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신속한 조사와 함께 빠른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피신고인이 속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필요시 추가로 기관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금일도 직장운동부 사건을 심의했다. 이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엔 지도나 규정 미비보다는 현장의 지도자·선수, 임직원의 인권의식 부족이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센터는 선수·지도자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임직원 등 총 4만여명을 대상 '(성)폭력 및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은정 윤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선수·지도자·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체육계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22 베이징올림픽이 '성평등 올림픽'이 되려면

'2020 도쿄 올림픽'은 '성평등 올림픽'으로 남았다. 그러나 올림픽 보도·중계의 성평등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경기력과 무관하게 선수의 외모나 여성성을 부각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오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은 달라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언론과 중계진의 젠더감수성 향상, 나아가 여성의 몸과 '여성성'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포츠인권연구소(대표 문경란)는 20일 오전 10시 '제6회 스포츠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스포츠와 성평등 - IOC 성평등 스포츠 전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스포츠인권연구소 성평등스포츠세미나팀의 서정화 전 모굴스키 국가대표, 차해리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전 YTN 앵커가 발제했다.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여성 선수의 신체가 시각적으로 대상화된 경우는 5.7%로 남성(0.6%)의 10배 수준이었다. 여성 선수의 69.6%가 신체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경기를 펼쳤다. 남성이 노출 경기복을 입은 사례는 53.5%에 불과했다.

선수의 성별에 따른 호명 방식도 크게 달랐다. '여자' 선수라며 성별을 부각해 표현한 비율은 13.6%였다. '남자' 선수로 표현한 사례는 2.0%뿐이다. 여성 선수를 '소녀', '숙녀' 등으로 부른 사례가 29번 나왔지만 '소년'은 4번만 등장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더 레프리젠테이션 프로젝트'(The Representation Project)가 도쿄올림픽 첫째 주(7월 24일~30일) 미 NBC 올림픽 중계 내용을 젠더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다.

여성 선수의 외모를 부각하는 보도 행태도 여전하다. 한국 언론은 '도쿄 얼짱', '육상 여신', '미녀 선수' 등 제목을 단 기사를 쏟아냈다. 중계방송에서도 여성 선수를 가리켜 '씨약이', '여우처럼 경기한다'는 멘트가 나왔다. 차 대표는 이러한 보도가 선수의 경기력보다 성별에 주목하고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IOC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여성 선수 본인이 아닌 남편이나 파트너, 자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삼갈 것 ▲여성 선수의 성과에 대한 공로를 코치나 측근에게 돌리지 않을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 현실은 아쉬웠다. 선수가 '엄마'임을 부각하는 보도가 많았다. '아빠'임을 강조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선수 성별에 따른 중계·보도의 양적·질적 차이도 분명했다. 여성 경기는 30분 분량 하이라이트, 남성 경기는 생방송으로 2시간 이상 보도하는 식이다. 중계진 구성도 성차별적이었다. 우리나라 지상파 3사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캐스터 33명 중 31명(94%)이 남성이었다. 이중 SBS는 아예 여성 캐스터를 배치하지 않았다. 차 대표는 "2018 평창올림픽 중계방송 325건 중 93%는 남성이 진행했고, 중계진 중 여성은 24.5%에 그쳤다. 3년 뒤 도쿄올림픽은 이보다 더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IOC는 △중계방송 시 여성과 남성의 경기를 모두 편성하고 △기사와 출판에서 여성과 남성이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동일한 비중으로 소개되도록 하며 △여성 경기나 여성 선수를 보도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 방송권 확보를 위해 모든 협상 능력을 동원하고 △여성과 남성 스포츠 이벤트가 비슷한 기간에 열리도록 일정을 조율하며 △기관이 방송사를 고용할 경우, 유치 제안 단계에서 여성 스태프에 중요한 역할이 할당되는지 확인하고 △여성 선수·코치를 인터뷰할 수 있도록 인터뷰이 목록을 점검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 장 계속

스포츠, 성평등하지 않다.

대한체육회 임원 총 50명 중 8명으로 16%

전국 시도체육회 임원 구성 비율 11%

여성 국가대표 지도자 비율 13%

더욱 중요한 것은 숫자 넘어, 보이지 않는 성차별 문화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제한, 기회의 불평등

출처: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전문가들은 '진짜' 성평등 올림픽을 위해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여성의 몸'에 대한 편견이다. 여성 프로 선수들조차 마르고 보기 좋은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도쿄올림픽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호주 수영 선수 케이트 캠벨은 11월 초 언론에 "남성 코치들은 '여성 선수는 마를수록 좋다'며 몸매를 대놓고 비판하고 체중이 늘면 다른 선수들 앞에서 꾸짖었다"며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고백했다. 최옥숙 총남대 강사는 "선수들은 언론이 '운동으로 다쳐진 몸'을 촬영하고 싶다면 상의 탈의를 요청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한다"며 일상적인 외모 평가, 심지어 성희롱에 시달리는 현실을 들려줬다.

체육 현장엔 여전히 '여성은 나약하고 까다롭다'는 편견이 존재한다. 최 강사는 남성 코치들이 여성 선수에게 "여자들은 운동에 100% 에너지를 쏟아내지 못한다", "쉬고 나면 체중이 늘어서 온다", "너 왜 그래? 생리하냐" 등 편견 섞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고 했다. "여성은 약하고 자기관리를 못한다는 편견이 여성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여성은 스포츠를 못하거나 싫어한다'는 고정관념은 이렇게 단단해지고 어린 여성들에게 주입된다. 우리나라 10대 여성의 49%는 체육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3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도 14.40%에 그쳤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국민생활체육조사). 같은 연령대의 남성은 23.50%만이 체육활동을 안 한다고 답했다. 서정화 전 모굴스키 국가대표는 "성평등 스포츠를 위해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고정관념, 스포츠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부터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발제자들은 정부, NGO, 스포츠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성평등 스포츠 정책과 구조,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OC의 성평등 스포츠 전략 보고서인 'IOC 성평등 리뷰 프로젝트',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스포츠에서의 성평등, 공정과 포용 재현을 위한 IOC 미디어 가이드북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혜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 공공교육부장, 나경희 시사인 기자, 최옥숙 총남대 강사가 참여했다.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스포츠인권포럼은 월례포럼으로, 운동선수 및 지도자, 체육교사, 스포츠 단체 및 정책 관계자, 연구자, 여성·시민·인권운동 활동가, 법조인, 언론인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포럼 영상은 스포츠인권연구소 유튜브 채널 스포츠인권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eVWTVNLes9o>)

‘다년 계약’ 전면 허용... 프로야구 새 시대 열린다

프로야구에서 FA 선수들만 가능했던 다년 계약이 이제 모든 선수에게 허용됩니다.

메이저리그처럼 FA가 되기 전에도 소속팀과 장기계약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입단 후 최소 8년이 걸리는 FA 자격 획득 전까지는 1년씩만 계약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년 계약을 허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롯데 안치홍 선수의 문제 제기로 법적 분쟁이 될 조짐을 보이자 KBO는 모든 선수의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수는 미래 소득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구단은 주축 선수들을 오래 보유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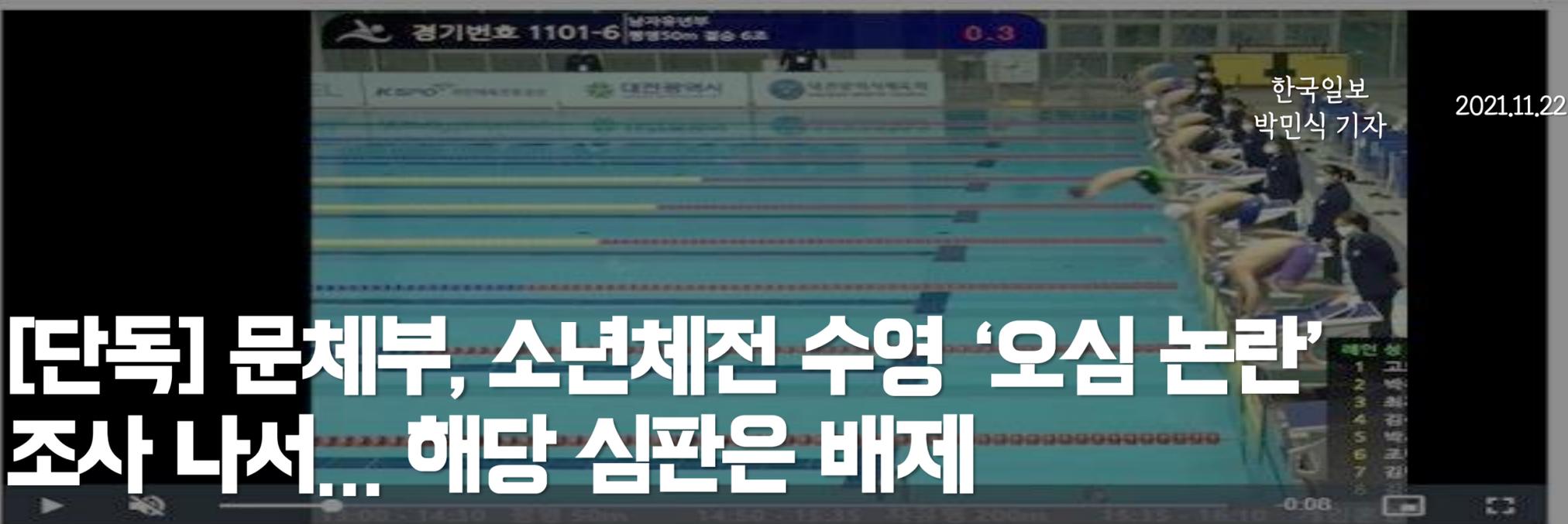
마이크 트라웃, 타티스 주니어 등 많은 슈퍼스타들이 모두 FA가 되기 전 소속팀과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정후와 강백호 등 FA가 되려면 3년 이상 남은 젊은 선수들도 이제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다년 계약 전면 허용은 FA 시장에서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예랑/리코 스포츠에이전시 대표 :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서 FA와 자유계약선수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구단들이 소속 선수와 다년 계약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새 시대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수영 꿈나무들이 기량을 겨루는 전국소년체전에서 발생한 '오심 논란'을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공식 접수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맹은 이번 오심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문제를 일으킨 해당 심판을 국내 대회 심판진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오심 논란'이 확산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뒷짐 지고 있던 연맹도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2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이 사무처를 방문해 소년체전 오심 논란의 신고가 공식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오심으로 피해를 본 선수의 부모가 정부 감시기관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비리에는 체육단체 활동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입시 비리 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물론 승부 조작, 편파 판정 등 운동 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앞서 12일 대전국제용운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유년부(초등 1~4학년) 평영 50m 종목에서 우승한 선수가 출발 버저가 울리기 전 움직여 실격이라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유튜브로 중계된 방송에도 문제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지만, 심판장은 '방송용 화면은 판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려 해당 선수는 우승했다. 전문가들은 "연맹의 판단과 운영이 미비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오심 논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심판 국내 대회 배치 안 해"

문제가 커지자 수영연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영연맹 관계자는 "연맹 내 위원회 중 심판 관련 안건을 검토·결정하는 조직인 심판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번 오심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심판을 국내 대회 심판진에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국내 대회가 열릴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심판풀에서 선정해 직책과 역할을 배정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날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막을 올린 제16회 한라배 전국수영대회부터 적용된다. 윤리센터 조사가 개시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해당 심판을 국내 대회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윤리센터 조사에서 오심으로 인정되고, 그 책임을 물어 해당 심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간 스포츠 소식

[천자춘추] 남북 스포츠 교류, MZ세대에게 묻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0263>

‘대학생 스포츠제전’ 2021 루체른동계U대회 결단식 개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24000617>

美·英 올림픽 보이콧 검토에...中 "스포츠의 정치화" 맞불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2213391716686>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장애인체육인 인권 세미나 개최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850>

체육과 정치는 분리, 황희 장관 "베이징올림픽 참여가 기본방침"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79487?ref=naver>

체육진흥공단, 레저스포츠산업 청렴 업무협약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6_0001666302&cID=10501&pID=10500

‘군면제’ 걸린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국가대표 선발 어떻게?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020968.html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27일 본선...9개 종목 실시간 중계

<https://www.news1.kr/articles/?4503757>

골프 용품 수입 ‘역대 최대’...안전한 야외 스포츠 인식 영향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2410212209732>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